



“잘 가르치는 소수정예 대학으로 2025년엔 ‘세계 30대 大’에 들겠다”

선우중호 지스트 총장 인터뷰

선우중호 지스트 총장은 “교수와 학생들의 열기로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캠퍼스가 지스트의 경쟁력”이라며 “연구열기를 이어가면서 국제화 노력과 소수정예의 알찬 교육을 통해 2025년까지 세계 30위권 대학에 진입하도록 뛰겠다”고 말했다.

김영근 기자 kyg21@chosun.com

선우중호(鮮于仲皓)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은 “광주과학기술원은 학생들 교육을 잘 시키는 대학인 동시에 교수들이 세계를 놀라게 하는 연구를 한다”며 “24시간 캠퍼스에 불이 꺼지지 않는 이유는 이같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학생과 교수들의 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영국의 글로벌 대학평가기관인 QS가 지난 9월에 발표한 2010년 세계대학평가에서 연구 분야 중 논문의 피인용지수에서 세계 10위를 차지한 대학. 올해 처음 학부 신입생을 뽑아 학부생이 모두 채워지지도 않았는데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력을 자랑하는 광주과학기술이 된 비결은 무엇일까.

선우 총장은 “지난 1993년 광주과학기술원이 개원한 이후 학교가 매우 엄격한 교수평가기준을 마련하며 학교의 ‘기초체력’을 단단히 다졌기 때문”이라며 “우리 대학은 40대 후반~50대 초반의 중견(시니어) 학자들의 연구력이 매우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5년까지 세계 30대 대학으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학교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과학기술원은 교수들의 뛰어난 연구력으로 유명하다.

“117명의 교수들이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대학의 연구를 이끄는 분들은 40~50대의 중견 교수들이다. 지난 1993년 광주과학기술이 개원한 이후부터 교수들이 ‘세계적인 연구중심 대학을 만들자’고 의기투합한 결과다. 교수들 스스로 매우 엄격한 교수평가 기준을 만들었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학교의 연구력이 급상승했다. 우리 대학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과 비슷한 연구력을 보이고 있다.”

—석·박사 과정 학생들도 논문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

“2009년 기준 박사 졸업자 평균 SCI급 논문 발표가 8.18편이다. 학생들은 전원 영어로 수업을 하며 우수한 교수와 함께 논문을 발표한다. 이들은 전원 등록금과 수업료를 면제받으며 기숙사(2인1실) 또는 기혼자 아파트에서 생활한다.”

—석·박사 과정 중심으로 운영하다 작년엔 처음 학부 입학생을 뽑았는 데.

“2010학년도 신입생으로 학부생 100명을 뽑았다. 광주과학기술원 학사 과정은 과학과 공학의 기초를 탄탄히 하는 데 특징이 있다. 예컨대 학부 1~2학년은 물리·화학·수학과 인문·사회과학을 공통으로 배운다. 그리고 3·4학년엔 원하는 학문을 선택하여 배우게 한다. 이들 역시 수업료가 무상이다.”

—학부생의 인문사회과학 교육을 강

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과학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부 때 기본적인 지식을 연마하는 데 중점을 둔다. 1~2학년에는 전공 개념 없이 다양하게 공부하는데, 특히 이 시기 수업의 4분의 1이 인문사회과학 분야다. 과학고를 나온 학생이 많아 다소 힘들 수 있지만, 인문학의 사고 방식을 공부하는 것이 나중에 과학공부를 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을 준다.”

—학부생의 인문사회과학 수업은 어떻게 진행하나.

“주로 토론회 수업이다. 학생이 적기 때문에 가능하다. 당연히 학생들은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 한 학기 일어야 하는 인문사회과학 책이 1500페이지(5과목 정도)다. 또 리포트 10편을 써야 한다.”

—3학년이 되면 전공이 정해지나.

“정보통신공학부 등 5개 학문 트랙이 있다. 하지만 이것이 일반대학에서 말하는 학과개념은 아니다. 학생이 일찍 학과에 속하게 되면 그 과의 교수들이 요구하는 과목만 듣게 되는 게,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학생들에게 학과 소속감을 심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공계 학부생들이 일찍 학과에 속하면 여러 단점이 있다. 학과의 벽에 둘러싸이게 되는 것이다. 이는 후에 학문적 성장을 하는 데 방해가 된다. 솔직히 말해 이공계 학생 중 대학에서 배운 것을 평생 동안 쓰는 비율이 얼마나 되겠나. 자연과학 분야는 매우 급하게 변하지 않나. 때문에 학부에서는 학생들의 기초를 탄탄히 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다. 물론 이 같은 교육방식에 대해 산업계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 대학은 기본적으로 연구인력, 교수인력을 키우는 대학이므로 교육과정의 차별화된 것이다.”

—한국 대학들에 ‘캠퍼스 국제화’가 화두다.

“광주과학기술원은 1995년 석·박사과정부터 영어강의를 시작했다. 영어강의가 교육적으로 옳고 그르냐의 논란은 있지만, 세계적인 대학이 되려면 영어로 연구하고 교육하는 게 자연스러워야 한다. 교수와 학생이 국제무대로 자주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세계 주요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교수나 학생이나 모두 영어에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외국 학생·연구원들이 광주과학기술원에 많이 지원하나.

“이제 유학오는 외국 학생들에 대해서도 질(質)관리를 해야 한다. 외국 학생이라고 무조건 입학허가를 주지 않는다. 우리 대학에는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다. 일단 이 과정에 들어와 공부와 연구를 한 후 선별해 외국 학생을 입학생으로 뽑는다. 지금 석·박사 과정(1000여명) 중 10%(120명) 정도가 외국 학생이다.”

—6·25 참전국 우수 학생들을 뽑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는데.

“그렇다. 6·25 참전국과 중국의 조 선족, 중앙아시아 고려인 우수학생들이 우리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은 마련 중이다. 이들에게는

학비를 면제시켜 줄 예정이다. 공부한 후 고국으로 돌아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광주과학기술이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분야는.

“광공학분야, 나노바이오, 의료장비 개발 등을 세계적 수준으로 키우고 있다. 이 분야들은 어느 특정한 학과에서 연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 학과에서 융합연구를 진행 중이다.”

—그동안 광주과학기술원 졸업생(석·박사 과정)의 진로는 어떤가.

“학부생은 작년에 처음 신입생을 뽑았지만, 석·박사 과정은 기간 수준 높은 연구로 이미 지명도를 높였다. 박사 졸업생의 11%가 대학교수로 임용됐다. 국내 학위로 외국 유명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졸업생도 있다.”

—광주과학기술원 학부교육의 강점이 무엇이라고 보나.

“소수정예교육이다. 한 학년 정원이 100명이라 15~20명의 소규모로 수업이 진행된다. 앞서 말한 토론회 수업은 그래서 가능하다.”

—학부생은 주로 어떤 학생이 많이 입학하나.

“아무래도 과학고 학생들이 많이 들어온다. 하지만 일반계 고교 출신들도 뽑아 학생 구성의 다양성을 견지하려고 한다. 출신 고교는 지역별로 수도권 고교 출신 학생이 45%이다. 전국에서 골고루 학생이 온다.”

—어떤 학생을 뽑으려 하나.

“틀에 박힌 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지양한다. 공부성적은 약간 떨어지더라도 엉뚱하면서 기발한 학생들을 찾

아내려고 한다. 성적순으로 뽑게 되면 학생들 구성이 너무 단조로워진다. 비록 입학정원은 많지 않지만 우리 대학에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들의 모이도록 하겠다.”

—그렇게 학생들을 뽑을 방법이 있나.

“면접을 해 보면 안다. 천연일물적 대답, 똑같은 답안지를 쓰는 학생들을 뽑지 않을 것이다. 우리 대학을 지원하는 수험생들에게 ‘특별함을 보여라’고 말하고 싶다.”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해 강조하는 것이 있나.

“학부생과 석·박사 과정 학생들 중 일부는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중 고생들을 일주일에 한번씩 찾아가 그들의 ‘멘토’가 되어 준다. 정부로부터 학비를 전액 지원받는 우리 학생들이 ‘사회로부터 혜택을 받았으니 다른 이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로 시작한 것이다. 어린이집과 고아원, 공부방 등에서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에게 인성상담도 해주고, 공부도 가르친다.”

—학부생을 작년에 처음 뽑았는데, 학교를 발전시킬 비전은.

“이미 우리 대학 교수들의 연구력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이제 학부생을 소수정예로 잘 가르치는 대학이라는 명성을 얻도록 노력하겠다. 캘리포니아공대(칼텍) 정원이 250명인데, 이 대학의 교육방법을 벤치마킹하려고 한다. 2025년까지 세계 30위권 대학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꾸준히 대학발전에 매진하겠다.”

안석배 기자 sbahn@chosun.com

“

세계적 대학 되려면 영어로 연구하는 게 자연스러워야 하죠

특별함이 보이는 엉뚱·기발한 학생 찾아내려 합니다

”

G I S T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AN ASSOCIATED INSTITUTION OF THE UNITED NATIONS UNIVERSITY

http://www.ists.unu.edu

지구, 인류, 미래를 GREEN으로 채색합니다

GIST가 UN대학과 세계 환경문제 해결에 동참합니다

“UNU & GIST Joint Programme on Science and Technology for Sustainability”

국제환경연구소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search Center)

UN대학-광주과학기술원 협력프로그램

- 지속가능한 환경과학기술 연구 및 개발
- 환경정보 네트워크를 통한 국제협력
- 개발도상국에 대한 환경과학기술 교육

500-712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리로 26(오봉동) 광주과학기술원 국제환경연구소 Tel 062-715-3366 Fax 062-715-3394 E-mail ierc@gist.ac.kr